



봄인 듯, 겨울인 듯... 유채꽃과 한라산 11일 서귀포시 하원동에 활짝 핀 유채꽃과 상고대와 눈이 내린 한라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코로나19가 빛은 '슬픔' "요양원 출입 제한에 모친 임종 못봐"

코로나19가 부모 자식간 이별의 순간도 가로 막고 있다. 요양원에 대한 외부인 출입 제한이 내려지면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고광식 경감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제주 외부인 출입 제한이 있는 88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고 경감은 불에 타 침몰한 서귀포선적 어선 307해양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제주 우도 남동쪽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서 22일째 수색을 하고 있다.

고 경감은 "어머니에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들이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돼버려 안타깝다"고 슬퍼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58개소(제주시 40개소·서귀포시 18개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휴원을 권고돼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외부출장·교육·여행 전면 금지 ▷거주실별 급식 배식 ▷집단급식시 개인용 식기 사용 ▷촉탁의 검역 ▷실시간 검진 모니터링 등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도내 학교 4곳 중 1곳 보건교사 없다

"코로나19 대응 못해" 여론에 도교육청 채용 공고 서귀포지역은 '거리상 문제' 등으로 구인난 겪어

제주지역 학교 4곳 중 1곳이 보건교사가 없어 코로나19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보건교사 인력 추가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처 방안을 고심해야 할 형편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91곳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45곳(전체의 24%)에 달한다. 대부분

이 학생 수가 100명 이내인 읍면 지역 학교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에는 순회가 허용돼 보건교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학까지 밀어낸 코로나19 사태에 도교육청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에서 "다른 학교 보건 교사들이 순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건교사의 업무 과중, 감염병 예방 업무의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 도교육청이 부랴부랴 방향을 튼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교육청은 새 대안으로 임시 보건인력을 두고 감염병 예방교육과 모니터링, 보건실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서귀포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보건인력 긴급 채용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나 보건교사 자격을 소지한 22명(제주시 10명·서귀포 12명)을 채용해 학교 2곳씩 순회 근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학(23일)을 일주일 남긴 16일부터 3개월 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활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제주시에선 채용이 마무리된 데 반해 서귀포시에선 목표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인력 채용 재공고를 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의 경우 거리 상의 문제로 보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공고 결과를 보면서 인력 부족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바다 지키던 퇴역 함정 에콰도르 양어

제주해역 경비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함정 2척이 에콰도르로 무상 양도돼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302함과 303함 등 2척을 에콰도르에 무상 양도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

이들 경비함정은 각각 1990년과 1991년 건조됐으며 임무에 투입된 지 30년 가량 지나 더 이상 국내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에콰도르는 퇴역한 이들 경비함정을 수리해 오는 5-6월 즈음 자국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이후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퇴역 경비함정은 해체된 뒤 고철로 폐기됐지만 최근 해양경비법이 개정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힘내라"... 中 다렌시 화답 마스크 1만여개·방호복 1500벌 등 지원 의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마스크를 보냈던 중국에서 화답이 왔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다렌시가 "제주에 보내준 마스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이달 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원 품목은 N95마스크 5000개, 일반 의료용 마스크 1만개, 방호복 1500벌, 라텍스 장갑 1만개다.

아울러 중국 춘추항공 한국지사에서도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께 조그마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스크 1000개를 대한적십자

사 제주도지사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평촌타이 주제주중국총영사는 지난달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중국 유학생들의 예로사향을 듣고 중국 자매·우호도시에 구호물품 지원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에 대해 제주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중국 다렌시를 비롯해 하이난성, 상하이시 등 자매·우호도시 4곳에 1억원 상당의 마스크 10만개를 지원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 시범 운영

주민안전 위협 요인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1일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통합 치안센터(약칭 행복치안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

행복치안센터는 송당리사무소와 저지리치안센터 2개소에서 시범운영되며, 자치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 업무를 추진한다.

송당리의 경우 리사무소 내부에 치안센터를 설치해 행정·치안의 융



합 사무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되며, 저지리는 기존 1인 체제 치안센터의 인력과 사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사무를 중점 수행해 행정과 치안 소외지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 역사문화공간으로...

문화재청 복원정비 계획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

정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정비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11일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전쟁 중 많은 신병을 배출해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를 보수·정비,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등 200여건을 목록화하고 참전용사 유물 등 10여건 문화재 등록·지정에도 나선다.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는 전란기를 비롯해 광복 후 한국군 창설과 훈련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적으로, 등록문화재 제409호로 지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에 대한 구술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쿠아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쬐(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100% 스텐연통 설치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초기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성질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논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